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산업경제연구부 이지훈 부연구위원
(063-280-7146, 010-7167-2132)
- **담당본부장**: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
(063-280-7141)

보도시점 : 2021년 06월 21일(월)부터

전라북도 신산업지도 변화 의의와 발전방향 공동세미나 - 22일 14시 전북도청 대회의실4층, 전북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 공동주최 -

-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과 전북테크노파크(원장 양균의)는 22일 14시 전북도청 대회의실(4층)에서 '전라북도 신산업지도 변화 의의와 발전방향'이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.
- 이번 세미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,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등으로 탄소소재산업이 가시화되고 있고, SK 컨소시엄의 투자계획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등으로 내년 대선과 연계하여 탄소소재 이후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도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.
- 1세션에서는 전북연구원의 김시백 박사가 '소부장 특화단지 및 산단 대개조 선정 의의 및 향후발전 방안', 이지훈 박사가 '빅데이터융합 전북 신산업의 혁신전략' 등이 발표되며 설경원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좌장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, 한국전자기술연구원, 전북대, 원광대 등의 전문가 참여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.

- 2세션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이송인 단장이 '전북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산업 발전방안', 이영미 단장이 '전북 바이오헬스산업 현황 및 혁신전략'이 발표되며 윤권하 원광대병원장의 좌장으로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, 전북대, 마더스제약 등의 전문가 참여로 전북형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바이오산업에 대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.
- 권혁남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생태문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북의 산업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전북의 탄소소재 육성의 노하우가 데이터산업, 바이오산업 등으로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.
- 양균의 원장은 탄소소재는 명실공히 전북이 수도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고 이제는 미래를 보고 새로운 산업을 보다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야한다며 전북 산업정책의 두 축인 전북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.

별첨 : 전북연구원-전북테크노파크 공동 세미나 계획(안)